

\* 여러 부처님들이 모이는 곳에 문수(文殊)가 찾아왔다. 다들 제 본래 주처(住處)로 돌아갔는데 한 여인이 있어 세존 옆에서 같은 삼매(三昧)에 들어 있었다. 문수가 부처님께 말했다. "어떻게 여인이 부처님 옆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가 문수에게 고했다. "네가 그 여인을 두드려 삼매를 깨운 다음 직접 물어보라." 문수는 여인 주위를 세 번 돌고 손가락을 찌르러 보았다. (그래도 소식이 없자) 범천(梵天)으로 올라가 신룡력을 다해 그녀를 깨워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세존이 말했다. "수백 수천의 문수가 오더라도 이 여인을 삼매로부터 깨우진 못하리라. 아래쪽 십이여의 황하사(恒河沙)의 국토를 지난 곳에 망명(罔明)이라는 보살이 있다. 그가 이 여인을 삼매로부터 깨울 수 있으리라. 말이 떨어지자 망명대사가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세존께 예배를 올렸다. 세존이 망명에게 명을 내렸다. 망명은 여인 앞으로 나아가 손가락을 한번 찌르자. 이에 여인이 삼매로부터 깨어나왔다.

### 한형조 무문관 발행

70

#### 여인의 삼매

등장시켰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의(離意)이다. "뜻을 여의었다!" 나와 남을 가르치고, 뜻난 것과 잘난 것을 따지며, 선과 악의 집착에서 신음하는 사바를 떠나라는 간곡한 뜻이 담겨 있다.



그림 · 문병성

어째서 지혜 제일이라는 문수가 아니라 하나에 찰찔매고 있는가. 자만한 탓이다. 일곱 부처의 스승이며 부처님의 정법을 한 손에 쥐고 있다는 아만(我慢)이 그를 눈멀게 한 것이다. 부처님은 문수의 뿌리깊은 무의식적 편견과 고착을 떨쳐주려 했다. 그래서 한 여인을 깨운 다음 직접 물어보라. 문수는 여인 주위를 세 번 돌고 손가락을 찌르러 보았다. (그래도 소식이 없자) 범천(梵天)으로 올라가 신룡력을 다해 그녀를 깨워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세존이 말했다. "수백 수천의 문수가 오더라도 이 여인을 삼매로부터 깨우진 못하리라. 아래쪽 십이여의 황하사(恒河沙)의 국토를 지난 곳에 망명(罔明)이라는 보살이 있다. 그가 이 여인을 삼매로부터 깨울 수 있으리라. 말이 떨어지자 망명대사가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세존께 예배를 올렸다. 세존이 망명에게 명을 내렸다. 망명은 여인 앞으로 나아가 손가락을 한번 찌르자. 이에 여인이 삼매로부터 깨어나왔다.

## 욕망 반대편에 마음을 두라

오래 전 캘리포니아 선원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그곳에서 명상 강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과 세간의 삶과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그들은 "사회 속에서 항상 두려움을 느낀다", "승진을 위해서 혹은 승급관으로 일한다", "일하면서 기쁨을 피우거나 화를 낸다"고 말했다.

명상을 배우고 싶어 이곳에 온 사람들의 이같은 심정 토로는 바로 우리의 주변에 기생하면서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재가불자들이 명상을 방편으로 깨달음 혹은 행복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명상수행을 하는 우리가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장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이 장애물들은 정신적 수행의 여정에 당연히 놓여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장애물들은 항상 우리가 겪고 있는 길 위에서 미약한 혹은 강력한 존재로 나타나 우리와 맞선다. 우리가 성공적인 명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낸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

### 책 콘피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0

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장애물로 인해 우리는 바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실비아 부르스타인(Sylvia Boorstein)이 <심리

다. 욕망이란 다른 것 혹은 더 좋은 것에 대한 바람이다. 분노는 사람들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생긴다. 모든 낭패감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줄음과 게으름은 세 번째 장애물이다. 이것은 수행자가 유·무정물과의 관계에서 자기 만족을 얻었을 때 나타난다. 불안은 그 반대의 경우다. 마지막으로 불신이 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달고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려고 할 때 생긴다. 불신에 찬 사람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같은 삶이 바른 길입니까?" 등과 같은 말을 자주한다. 이같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같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같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더 좋은 것 바랄 때 마음을 닫을 때 욕망·불신·분노 생겨

과학이 아예 판단을 중지하거나 접근을 포기해 왔다. 그러나 컴퓨터의 능력은 엄청난 요소들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것이다. 또한 이 생각은 레이저의 개발로 가능해진 새로운 사진기술 홀로그래피(holography)의 원리에도 같다. 그것은 입체적인 상(像)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부만으로도 전체가 복원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구조는 최근의 대뇌생리학에서 주장하는 뇌의 구조와도 같다. 종전의 뇌에 관한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9

다. 천문관찰을 할 때는 망원경을 쓰고, 세균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사용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현상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인이 있음으로써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는 인과론, 또는 요소환원주의적인 안경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복잡한 것을 볼 때는 새로운 카오스(넓게는 복잡성 과학)의 안경이 필요하다. 이같은 안경은 구조적으로 카오스적, 또는 복잡성적인 사고이자 인간에 관한 것은 불교 과학이 아예 판단을 중지하거나 접근을 포기해 왔다. 그러나 컴퓨터의 능력은 엄청난 요소들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것이다. 또한 이 생각은 레이저의 개발로 가능해진 새로운 사진기술 홀로그래피(holography)의 원리에도 같다. 그것은 입체적인 상(像)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부만으로도 전체가 복원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구조는 최근의 대뇌생리학에서 주장하는 뇌의 구조와도 같다. 종전의 뇌에 관한

## 지혜 제일 문수 왜 절절 땀을까

### 분별·욕망 지우면 일상이 그대로 삼매

보살인데 어째서 그럴 수 있었는가. 여기서 절절히 보는 바가 있다면 업식(業識)이 다량(多量)한 그대로 거대한 삼매이다. \* 승하여 가로되, 깨우든 못 깨우든 너와 나는 자유를 얻는다. 귀신마리와 도깨비탈이나, 실패도 그대로 종류인 것. 女子出定: 世尊, 昔因文殊至諸佛集處, 值諸佛各還本處, 惟一女人, 近彼佛坐, 入於三昧, 文殊乃白佛, 云何女人得近佛坐, 而我不得, 佛告文殊, 汝但覺此女, 令從三昧起, 汝自問之, 文殊 女人三, 嗚指一下, 乃托至梵天, 盡其神力而不能出, 世尊云, 假使百千文殊, 亦出此女人定不得, 下方過一十二億河沙國土, 有閻摩善薩, 能出此女人定, 須臾閻摩大士, 從地湧出, 禮拜世尊, 世尊勸閻摩, 却至女人前, 嗚指一下, 女人於是, 從定而出, 無門, 釋迦太子做一場雜劇, 不通小, 且道, 文殊是七佛之師, 因甚出女人定不得, 須臾初地菩薩, 從地出, 若向者裏見得親切, 業識忙忙那遊大定, 頌曰, 出得出不得, 樂得自由, 神頭拜見面, 取觀當風流.

혹은 확장은, 3조 승찬(僧璨)의 <심심명(信心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지도부난, 유령간택(至道無難, 唯難揀擇)", 지극한 도(道)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다만 이것 저것을 가지고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라. 분별은 대개 눈먼 욕망의 결과이다. 그 가운데 성적 욕망의 차라리 접기 쉽다. 육신의 욕망보다는 마음의 욕구가 더 나스리기 어렵다. 지배하려는 충동, 인정받으려는 욕구, 즉 니체가 말한 권력욕의 의지가 그것이다. 문수는 여기에 저도 모르게 휘둘린 것이다. 무명의 뿌리는 그만큼 깊고 끈질기다. 선거절이 다가오자 종단이 또 슬렁이고 있다. 벌써부터 불미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불자들의 우려와 탄식은 또 그만큼 깊어간다. 초발심을 돌이켜 볼을 지킬 것을 모든 불자들이 함께 소망한다. 욕망의 흔적을 지우면 해개의 말마따나 삶의 일상이 그대로 욕망의 삼매인 것을, 모든 것이 '나' 밖에서 일어나는 도깨비장난이니 이 게임에는 진 사람이 없고 이긴 사람이 없다. 문수도 없고 여인도 없다. 꼭두각시들의 가면극에 모든 것이 종류라. 이 아닌 종용소나. "지고 넘어진 것이 곧 종류(敗類當風流)"라는 말을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달아 주고 싶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불교와 수학

74

#### 전체와 부분

#### 김용운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는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들을 수 있다. 그 환자는 심각한 고민으로 그 병에 걸린 것인데 의사는 마음과 육신의 관계를 잘 관찰하여 환부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의 통일체로 보고 치료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한국은 심각한 한국병, 곧 부정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힘써 그것을 일소할 것을 다짐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정공무원을 적발하여 퇴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한국의 원형( 마음)의 차원까지도 관찰하여 한국병의 원인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며 전체적인 문제로 고찰해 가야 한다. 시대는 관점의 변화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쿤(T. Kuhn)이 1962년에 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paradigm)이란 말은 과학이나 과학의 방법론의 변혁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쉽게 말해 '세상을 보는 안경을 바꾸는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

다. 천문관찰을 할 때는 망원경을 쓰고, 세균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사용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현상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인이 있음으로써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는 인과론, 또는 요소환원주의적인 안경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복잡한 것을 볼 때는 새로운 카오스(넓게는 복잡성 과학)의 안경이 필요하다. 이같은 안경은 구조적으로 카오스적, 또는 복잡성적인 사고이자 인간에 관한 것은 불교 과학이 아예 판단을 중지하거나 접근을 포기해 왔다. 그러나 컴퓨터의 능력은 엄청난 요소들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것이다. 또한 이 생각은 레이저의 개발로 가능해진 새로운 사진기술 홀로그래피(holography)의 원리에도 같다. 그것은 입체적인 상(像)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부만으로도 전체가 복원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구조는 최근의 대뇌생리학에서 주장하는 뇌의 구조와도 같다. 종전의 뇌에 관한

### "전체는 부분의 종합 아니다" 부분 즉 전체, 전체 즉 부분이니 민족원형 알아야 한국병 치료

적 사고의 전환이다. 이것과 반대되는 '요소환원주의'는 전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가령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기계의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났는지를 찾아내 부품을 바꾸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인간이나 사회를 관찰할 때는 그럴 수가 없으며 전체를 하나로 관찰해야 한다. 컴퓨터가 출현하기 전에는 '요소환원주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으므로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는

었다. 그러나 진정한 팔정도는 바로 우리의 내면 즉,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두 개의 콧구멍, 한 개의 혀와 몸에 담겨있다. 이같은 여덟 개의 문을 통해 팔정도에 이른 우리는 "마음을 통해 팔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의 변화를 바로 보고 말할 수만 있다면, 불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애물들 중에서 욕망이 가장 난해한 문제이다. 영국의 저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나는 모든 것과 맞설 수 있지만 오직 유혹만은 예외이다"고 말했다. 이 문장은 각각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바람', 우리에게서 이것은 저버리기 가장 어려운 습관이다. 우리는 끊임 없이 바라고 또 바라며, '바람'의 대상은 끝없이 변화한다. 욕망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아찬차스님은 "욕망은 역겨운 것을 관함으로써 없앨 수 있다. 육체적 외형을 보고 일으키는 집착은 하나의 극단이니 마음을 반대편에 두도록 해야 한다. 욕체를 신체로 여기면서 하는 과정을 관하거나 욕체의 각 부분들, 즉 폐 지라 비계 배설물 등으로 관한다. 욕망이 일어날 때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몸의 더러운 면을 떠올려보면 욕망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번역·오종욱 기( gobaou@buddhopia.com)

### 신비의 약용버섯 아가리쿠스버섯

● 한국에서는 1996년말 농촌진흥청에서 다년간 연구하여 인공재배에 성공 농가에 보급 되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아가리쿠스에서 역식소재하여 미국, 일본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 FDA 승인 및 한국식품안전위원회에서 성분검사 결과 아주 우수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증강작용, 세포활성화작용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고 특히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환기계통:**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협심증 등  
**소화기계통:** B형간염, 간경변, 만성위염, 변비 등  
**신경계통:** 당뇨병, 관절염 등  
**호흡기계통:** 만성기관지염 등  
**생식기계통:** 생리불순, 갱년기장애, 부인병, 유방염 등

**仙氣泉(졸드)**  
· 아가리쿠스 추출액 100% (고형분 5% 이상)  
· 내용량 : 100ml x 30포  
· 가격 : ₩660,000

**아가리쿠스 건버섯**  
· 신토불이 한국산  
· 용량 : 300g  
· 가격 : ₩250,000

주식회사 아가리쿠스 · 구입문의 ·  
강남구 역삼동 668-5번지 (대)02)564-6464

### 개정3판, 제주대학교 안창범 교수 지음 "우리민족의 고유사상"

● **구입안내**  
● 이 책의 주요내용 :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립된 天·地·人·三神一體의 天道로서 동양사상과 동양문화의 원류임을 본서는 증명하고 있음. 그래서 모든 사상이 우리민족의 선진도에서 갈라났으며, 석가세존의 탄생지이시고 고행성도지인 雪山, 유교의 발생지인 崑崙山, 도교의 발생지인 三神山, 그리고 동학의 발생지인 龍潭이 모두 우리나라의 배두산(정지 용왕담)임을 본서는 증명하고 있음. 곧 석가세존은 한국 사람, 석가세존의 초전법륜자인 녹야원은 제주도 한라산(영실), 대승경은 원래 신선의 경전, 대승경의 범서는 우리민족의 언어와 문자, 불상의 규범은 신선의 상징, 대웅전·불탑·법종·석등은 원래 우리민족의 소산으로서 신선의 도의 유품임을 본서는 증명하고 있음. 종전의 학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임. 불교에 대해 새로운 연구를 하고, 민족정기를 진작코자 노력하시는 분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임을 밝혀드립니다.

**구입요령**  
이책(가로 15cm x 세로 22.5cm, 칼라사진 10매, 350쪽)은 크히 새로운 연구물로서 정가는 1만5천원, 10권 이상 주문할 때 40% 할인(권당 9천원함, 서점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저자의 자택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음. 이곳으로 주문 바람.)

■ 공급처 : 저자의 자택, 제주시 일도이동 1045의 8.  
■ 전화 : (064)752-4906  
※책값은 농협(계좌번호 : 953-02-198788, 예금주 안 창 범)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호스피스 간병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언제 : 불기 2542년 11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 어디서 : 충북 불교 자원봉사 교육센터  
◆ 무엇을 : 제6차 호스피스 간병인 교육 실시  
◆ 어떻게 :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나눔실천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 전문 호스피스 간병인 교육에 관심 있으신 스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에만 고귀한 삶을 투자한다면 그 생애가 얼마나 지루하고 무의미 하겠습니까? 누구나 죽음을 향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죽음마저도 초연히 보살핌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자비나눔의 길 함께 찾아 나서 보시지 않으실런지요?

자비심은 청정한 물이니, 모든 번뇌의 때 씻어주고 자비심은 타오르는 불꽃이니, 사탄 견해와 탐욕을 태우며 자비심은 밝은 태양 빛이니, 온 세상을 두루 비추고 자비심은 민자하신 어머니이니, 모든 중생을 양육 하시니라 (강지수 글)

그대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 합니다.

문의처 0431)254-2258, 254-1457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한옥마을  
충북 불교자원봉사 교육센터(지정정사)

충북자원봉사교육센터 원장 여현정장정 상담하세요.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뜻대로 사는 길 아·박·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망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바타를 경험하세요!**

● 아바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바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스물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바타 코스는 종교색이 없고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바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탐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전수해 준다.

"아바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학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큰 혜택을 이루게 하는 힘을 내어준다."

아바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옵니다. 아바타의 이름으로..

- 아바타코스는 7-9월이 걸리며 비용은 1600만원입니다.  
- 영축 아바타센터에서는 매일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바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시요. 안내 해지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바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신리 474(통도사 근처) 011)882-1149